

석유화학 고부가가치가 살길이다!

산자부, 국내 화학산업 경쟁력 떨어져 ... 기술개발에 최우선 지원

산업자원부가 1월8일 석유화학공업협회 신년 인사회에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현재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수준은 단위공장 규모나 기업별 생산능력이 선진국보다 작아 국내 에틸렌 생산 7개 기업의 전체 생산능력이 네덜란드 Shell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국내 화학기업의 생산 공정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제품 설계, 촉매 제조, 첨단 고부가가치제품 개발기술은 열위에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2004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4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이 가능한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기업 간 사업교환 및 품목별 통합을 통한 전문화와 대형화를 추구하고 기초원료 및 Utility의 공동 구매, 단지 내 배관 공동이용 등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민관이 공동대처하고 교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통상마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재 중국과의 양국간 협의회를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로 확대하는 등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세대 핵심 고분자소재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구조·내열용, 광·전자산업용, 의료·환경·에너지 등 3개 분야를 선정하고 석유화학분야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폴리올레핀 신소재 및 제조공정 개발, 고효율 석유화학 공정 및 신촉매 기술개발 등 차세대 12개 기술개발 예상과제를 선정했으며 19개 과제에 대한 기반조성 예상 과제를 조사도 마쳤다.

석유화학 부문의 기술개발 예상과제

폴리올레핀 신소재 및 제조공정 개발	고효율 석유화학공정 및 신촉매 개발	정보전자용 기능성 코팅 및 접합기능 소재 개발	Photonic용 소재 개발
화학기능 무기소재 기술개발	환경친화 고분자 발포체 개발	다기능 초미립자캡슐 제조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차세대 난치성 및 만성질환 치료용 합성의약품 개발
차세대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제품화 기술 개발	유전체기반 작물보호 생리활성물질 개발	청정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개발	신중합법에 의한 고품질 고분자 소재개발

산자부는 또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석유화학단지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해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 쓸 계획이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12>